

제2361호 2019. 6. 16.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서로를 드러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나는 있는 나다.”(탈출3,14)라고 모세에게 드러내셨을 뿐,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성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3,22)라고 말씀하시며 성자를 드러내십니다.

성자께서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느님의 나라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서도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22,42)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시며, 사람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셨던 성령께서도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요한14,26)라는 성자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성자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을 닮아 내가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진수 F.하비에르 신부 | 신안동 보좌

주일 진례

- 입 당 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 본 기 도**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잠언 8,22-31
- 화 답 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제 2 독 서** 로마 5,1-5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 복 음** 요한 16,12-15
- 영 성 체 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사람을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건 거대한 괴물들 얘기고, 우리 도깨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해. 사람의 살껍질을 벗겨 옷을 해 입고 다녀. 눈알을 쥐어짜서 젤리를 만들어. 토스트에 바르면 끝내줘. 지금 도망 안가면 뼈도 못 추린데. 아주 무섭제!

...난 혼자가 좋아. 난 늑에 사는 도깨비야. 써 붙여 놔잖아. 난 무시무시한 도깨비라구. 조용히 좀 살려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들 구는 거야.

- 영화 슈렉

슈렉은 심성이 착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내면을 모릅니다. 알고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지막지 큰 덩치와 초록 몸, 우락부락 얼굴, 그 보이는 것만으로 나쁜 괴물이라 판단합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이라기보다, 그 겉모습만으로 괴물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는 상처받고 콤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콤플렉스는 콤플렉스로 통합니다. 자신의 외모와 그에 대한 주변의 시선, 소외감으로 인한 열등감(inferiority complex, 열등 콤플렉스)을 가진 슈렉은, 이제 우월감(superiority complex, 우월 콤플렉스)을 만들어 보이려 합니다. 괴상하게 생긴 괴물이 아닌 험상궂고 잔인하며 무서운 괴물로, 혐오 받는 존재가 아닌 두려움을 주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소외받아 외로운 비주류가 아닌, 오히려 벽을 치고 다른 생명들의 접근을 차단하며 ‘혼자서도 잘사는’ 독존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는 게 두려워 세상을 왕따 시킵니다.

현실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 자신 앞에 진솔하고 당당하지 못하면, 꾸며진 나, 부풀린 나를 보여주려 합니다. 과시할수록, 나를 잃어갑니다.

콤플렉스를 덮을 가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맛소금



꿈 키움 프로젝트 - '소원을 말해봐'

일시: 2019. 6. 21.(금) 12:00~22:00

장소: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체육관

대상: 후원자, 이용자, 복지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약 1,000명)

문의: 055.237.6485~8

후원계좌

농협 355-1234-1004-13

경남 600-35-0002722

예금주: 창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 한국 가톨릭 농아인의 날



| 제8회 한국 가톨릭 농아인의 날 행사가 6월 2일 천진암성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교구 이성효 주교와 전국 농아선교회 담당사제 공동 집전 기념미사와 강연이 마련되었다. 강연에서 작은 농인선교 수도회 총장 사비오 사스티그리오네 신부가 '작은 농인선교 수도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하여 찰리 오누맥부 신부가 '아프리카에서의 농인 사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교구 농아 선교회원들은 임해원(안토니오) 신부와 함께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천진암 성지도 순례하였다.

● 중동성당 성가대 워크숍



| 중동본당 Cantate성가대(담당: 강운철 요한 보스코 신부, 단장: 김정하 요셉) 워크숍이 5월 26일 북면 산장에서 단원 25명과 이클라라 담당수녀가 함께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합창과 화합'이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성가대 활동, 합창의 특성, 성모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가정폭력 근절 자전거 퍼레이드



|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소장: 문은자 아델라)와 통영시자전거연맹, 통영시자전거동호인연합회 회원 등 30여 명은 5월 26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자전거 퍼레이드를 했다. 미수해양공원에서부터 무전해변공원까지 가정폭력 없는 통영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달렸다.

● 명서동성당 28주년 '본당의 날'



| 명서동성당(주임: 최재상 마티아 신부)은 6월 2일 28주년 본당의 날 행사를 문성체육관에서 실시하였다. 4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여 어울림마당, 게임, 경품 추첨 등으로 기쁨을 나누었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베트남 '라방' 공동체의 전통무용 축하공연은 신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칠원성당 본당설정 40주년 행사



| 칠원성당(주임: 배진구 베드로 신부)은 본당설정 40주년 행사의 하나로 '내 손으로 목주 만들기' 행사를 4월부터 개인별, 단체별, 구역별로 진행했다. 6월 2일 교중미사 때, 목주 축복식 행사가 있었다. 각자 만든 목주를 가지고 6월 한 달 매주 수요일에 칠원읍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걷기 기도회를 가진다.

돌아보니 고마워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

누구나 각자의 삶은 수많은 후일담으로 이어집니다. 더 소중한 마음을 울리는 일이 있다면 내 생애의 걸음을 되짚어 보며 꼼꼼히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내는 일이겠습니다. 조곤조곤 펼쳐놓는 한 사제의 체험담이 그랬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보는 즐거움과 아름다운 문체까지 겸비한 예사롭지 않은 재주꾼 사제의 에세이집,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의 저자 김대우. 그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의 이름 석 자를 두고 회자된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국 피디가 저에게 대뜸 “이름처럼 ‘대우’를 잘 해드려야 할 만큼 멋진 글이네요.”라고 웃으며 소감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라고 고백한 표제의 책은 피상적이지 않아 더 고마움으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어머니가 일하시던 재봉틀 소리가 그렇게도 싫던 어린 시절, 문득 철이 들고 보니 어머니의 말없는 희생이 눈물겨웠다는 고백이 누군가의 애기와 닮을 수도 있어 더 공감을 불러냅니다. 이렇게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되는 내용은 평범한 일상과의 만남, 사귄다 헤어짐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신비에 눈이 열리는 한 사제의 깊고 맑은 영혼을 따라 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어쩌면 내 삶 속에 들어와 박힌 수많은 순간들 또한 그렇게 소중한 것임을 미처 몰랐음을 깨우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이 독자들에게 다가오는 여정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 속에서 나를 살리고 키워주는 책을 고르기 위해 서성일 필요 없이 집어 들고 읽어 보시라고 말하고 싶은 책,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는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사람들 안에서 발견한 하느님의 섭리와 기쁨, 슬픔까지도 녹여낸 한 사제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인연과 소소한 사건들을 잘 기록해 놓는 습관이 좋은 책을 낼 수 있다는 섬세함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삶을 소중히 여겨 가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신비스런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지음 | 332쪽 | 바오로딸 |

구입 문의 : 교구청 내 성바오로서원 055.248.3089

바오로딸 인터넷서점 www.pauline.or.kr | facebook.com/fspcorea

카카오 스토리채널 story.kakao.com/ch/pauline

통신판매 02.944.0944~5

“이 책은 특별히 병과 내적 상처로 고통 받는 이들과의 만남에서 영감을 얻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이에게 푸른 바다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느님의 손길이 자신을 떠났다고 여기는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하찮은 노력일 수도,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나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고 공허한 마음을 온기로 채워줄 수 있다면 나 역시 신비로 물들 것이다.”(본문 중에서)

한 권의 책이 이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비를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책장을 덮습니다.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구원의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제-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개두포’를 걸치고 나면 ‘장백의’를 입습니다.

그때 기도는 “주님 저를 깨끗이 씻으소서. 제 마음을 어린양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어 저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소서.”라고 올립니다. ‘장백의(長白衣, 말 그대로 ‘길고 흰 옷’입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의 평상복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구 신학교 다닐 때 ‘구원론’을 가르쳐 주신 ‘문세화’ 프랑스 신부님께서는 로마 여인들의 속옷 같다고 투덜거리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길고 흰 ‘장백의’는 육신과 영혼의 결백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이 그분의 옷을 한 몃씩 차지하면서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지금의 장백의 비슷한 옷을 입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 속옷을 벗기우고 제비 뽑히는 치욕을 당하십니다. ‘장백의’는 영혼과 육체의 순결과 함께 주님의 치욕적인 모습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을 기억하며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를 주님과 함께 참아 내야 합니다. 또한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가 자칫 주님께 고통을 안겨 주지 않도록 경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로봇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정숙희 보나 • 시인

커피 한 잔 들고 나 자신을 바라보다 문득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해진다. 좋은 말로 하면 여유로운 생각, 좋지 못한 말로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할 것이다.

나름대로 기도도 선행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나의 마음 한가운데 분주함이 자리 잡고 있어 늘~바쁘다.

천천히 걸어도 되는데 뒤에서 누군가 날 잡으러 오는 듯 도망치듯 다니는가 하면,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림자가 사람인 양 ‘안녕하세요’ 한 후 상황을 파악하고 혼자서 피식 웃기도 하는 등 여유로움이 없는 마음은 실수투성이다.

성전에 앉아 기도를 해도 물 위의 기름처럼 겉돌고 영혼 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 눈 뜨면 기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평화방송 기도를 따라하고 운전을 할 때는 휴대폰을 켜놓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되물곤 하지만 이 단체 저 단체 기도에 스스로 발목을 묶고, 보고형식, 책임감, 욕심으로 가득찬 기도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무슨 기도

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다. 혼란스런 기도 때문에 소속된 공동체를 그만둬야 하나 망설임도 많았는데 머리로 식힐 겸 인터넷 검색창을 열면 마법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해답들... 좋은 글귀는 많지만 느낌 없이 다가오는데 우연히 마주친 글귀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내게 있어 하느님은 3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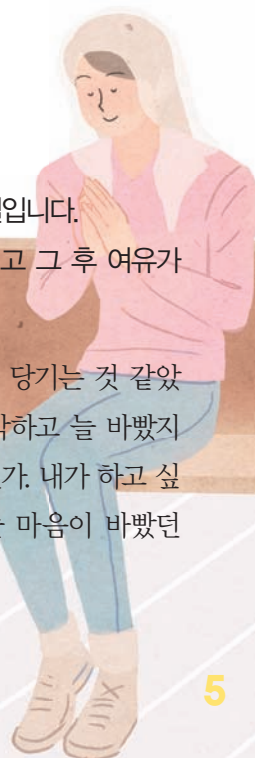
1등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며,

3등은 시간을 조금 내어 하느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 여유가 있으면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은 3등입니다’라는 말이 내 뒷덜미를 당기는 것 같았다. 나 스스로는 하느님을 1등으로 둔다고 생각하고 늘 바빴지만, 로봇 같은 기도로 때우기를 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착하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에는 늘 마음이 바빴던 게 아닌가. 깊이 묵상해 본다.



교구·본당

위원회·기관·단체

- **신학생 주교님 인사**
일시: 6. 17.(월) 10:00
장소: 교구청
- **성지 및 사적지 정비위원회**
일시: 6. 18.(화) 14:00
장소: 교구청 2층 회의실
문의: 사무처 055.249.7016
-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6. 19.(수) 10:00
장소: 문산성당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신학생 하계 연수**
일시: 6. 20.(목)~ 22.(토) 2박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성소국 055.249.7061
- **15차 약혼자 주말**
일시: 6. 21.(금)~23.(주일) 2박3일
장소: 성혈홍승수녀원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임**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청년성가집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안내**
가격: 1만5천 원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톨릭플러스친구 검색: 청년성서모임 성가집 주문
-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매주 (화) 19: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의: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 **체나콜로(다락방) 6월 월기도 모임**
일시: 6. 17.(월) 13:00~15:00
장소: 사파동성당(미사집전)
문의: 회장 010.9399.5454
-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시: 6. 18.(화) 13:30
장소: 교구청
문의: 담당자 010.9841.8191
미사와 데몬발표가 있습니다.
- **2019 평화아카데미 - 북한과 미국을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보기**
일시: 6. 19.(수) 19: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강사: 박문수 박사(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문의: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피정 1박2일**
일시: 6. 24.(월) 15:00 ~ 25.(화)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조배에 관심 있으신 분
참비: 4만 4천 원
준비물: 수건, 세면도구,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10.3903.8234
- **제23회 가톨릭미술가 협회 정기전**
일시: 6. 4.(화)~ 30.(주일) 11:00~22:00
장소: 마산갤러리(브라운핸즈마산점역)
문의: 사무국장 010.2309.7574
* 가톨릭미술가 협회 회원 모집 (영세받은 신자로 미술활동하시는 분)
-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미사안내**
베트남 공동체 미사(베트남어)
일시: 매월 넷째 주 (토) 19:30
장소: 대건성당 교육관 2층
주례: 부반단(마르티노)신부
문의: 대건성당 055.644.3323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시: 매월 첫주 (월) 10:00~14:00
장소: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의: 055.237.6487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간: 3월부터 12월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 상시(평일 및 주말)
장소: 고성 천사의 집
분야: 용접
문의: 055.673.6609, 010.4557.3251

수도회

- **나자렛 예수 수녀회 아름다운 만남 성소모임**
일시: 6. 16.(주일) 14:00
장소: 나자렛 예수 수녀회 본원
주제: 예수님의 향기
문의: 010.9597.8981(양 에스텔 수녀)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시: 7. 5.~7./ 7. 10.~13./ 7. 28.~31./ 8. 2~4./ 8. 6.~8./ 8. 15.~18.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전교 가르멜수녀회 성소식별피정**
대상: 수도성소 식별을 필요로 하는 미혼여성
때·장소: 7.12.(금)20:00~14.(주일)16:00/인천 수련소
문의: 010.6448.3191(성소담당 수녀)
- **전교 가르멜수녀회 수도생활체험 피정**
대상: 미혼여성, 어린이, 학생, 어머니
때·장소: 8. 24.(주일)10:00~16:00/부산 연산동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오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알주 9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수맥홍(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중 1588-5335	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북부 순교성지 + 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 3박5일 110만원~ 북부 + 중부 핵심일정 4박6일 130만원~ Point 부산 또는 대구 출발 매일 직항편 보유 창원에서 현지를 직접관리 (교우 인솔자 / 가이드) 본당 신심단체는 물론 및 여러 소그룹 순례 가능 홍콩&마카오/일본/태국/유럽 등 전지역 순례 가능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마산 삼계) 투어찬스 Tour Chance Tel. 055-264-2046 M. 010-2992-478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	--	---	--

■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살고자 하는 50세 이하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 집 : 3월 중~6월/ 해당 지역 전화 요망

창 원 : 010.4542.0347

마 산 : 010.7315.6059

진 해 : 010.8583.4350

거 제 : 010.3807.1618

거 창 : 010.4630.2838

내서·함안 : 010.5006.6254

통영·고성 : 010.2836.7720

산청·함양 : 010.5911.8792

진주하대동 : 010.3009.0650

진주칠암동 : 010.2776.2414

진주신안동 : 010.8831.3311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5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 의 : 송진욱 신부 010.3645.9028

■ 부산교구 수요치유기도회

일 시 : 6. 26.(수) 12:50~16:00

장 소 : 부산 영성의 집

강 사 : 오복희(아가다)

문 의 : 055.382.9465

■ 도박을 끊고 싶으신가요?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 (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29차 청년성령세미나 (2박3일)

일 시 : 6. 28.(금)14:00~6. 30.(주일)16: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청년

참가비 : 9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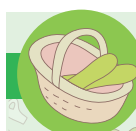
입금계좌 : 경남 593-22-0355398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 청 : 6. 19.(수)까지 (참가비 입금순 40명)

문 의 : 청년성령쇄신봉사회 myhs.or.kr
010.8864.7067, 010.9113.7062

※ 파견미사 6.30.(주일) 14:00



농민주일 행사 안내

농민주일(7월 21일)을 맞이하여 농업을 지키고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 마산교구 내 **우리농 생활공동체**에서 모든 물품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가톨릭농민회원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로 식탁을 마련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물품 : 연중 10% 할인판매 중입니다.

감자, 양파, 블루베리, 자두, 마늘



■ 제주 힐링 성지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 시 : 7. 12.~14. / 8. 9.~11. / 9. 17.~19. / 10. 15.~17. / 11. 5.~7.

장 소 : 제주성지 6곳 (성지해설)

문 의 : 064.805.9689

해외성지순례 : 10. 3.~9. 그리스성지순례 7일

■ 부산교구 <훈인강좌> 교수 초빙

분 야 : 심리학 및 유관 학문

서류 : 이력서, 교적, 박사학위증 사본

제 출 : 7월 말까지 / 우편접수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8-7 가정사목국

문 의 :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0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6. 17.(월) 13:00~17:30	월남동성당	영적 내적 치유	이영숙 베드로 수녀(한국순교복자수도회)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5072-5612
창원지구	6. 17.(월) 19:00	반 송 성 당	회복의 신비	김완식(요셉, 선교사)	정종규 신부(클라로, 원로사목)	010-9969-5340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에,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10월 12일 파티마, 루르드, 바르셀로나 순례 13일 399 만원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10월 2일, 인솔자, 신부님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savin 성악 스튜디오 T.070. 4384. 8730 blog.naver.com/franz32 조 현 울 프란체스코 마산회원구 양정1동 주민센터 맞은편 2층	전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	---	--	--

유사종교들의 활동방식 I

희선 씨(가칭)의 가정은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커다란 불화가 있지도 않은 가정이었다. 그런데 이제 희선 씨는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집에 들어오지 않고, 부모님께서는 한 교회 앞에서 딸을 돌려달라는 말이 쓰인 손 팻말을 들고 하루 종일 딸을 찾아 헤매고 있다. 어찌 된 일일까?

입시 전쟁의 출구를 찾아 열정을 바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희선 씨는 꿈꾸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만족스러운 대학에 입학했다. 그렇게 맞이한 20대의 봄날은 열정에 가득 차 있었다. 낯설지만 설레는 환경, 새로 사귀는 친구들과 선배들, 그리고 그간 참아왔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기에 그녀에게 대학 생활은 즐겁기만 했다. 어느 날 캠퍼스를 거닐던 희선 씨에게 봉사활동 동아리 소속의 한 학생이 다가와 새내기 동아리 활동을 소개한다. 학창시절 성당에 열심히 다니지는 못했지만 가톨릭 신자로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봉사는 사랑임을 잘 알고 있던 희선 씨는, 이참에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와 선배도 사귀며 대학 생활을 더욱 즐겁게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시작한 동아리 활동은 그녀에게 학교생활의 활력을 가져 다주었다. 동아리 선배는 낯선 대학 생활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다가올 취업에 대한 고민, 개인적인 문제, 이성 관계까지 그녀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

어느 날 희선 씨와 함께 길을 가던 그 선배는 지인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그를 희선 씨에게 소개하는데, 그 지인은 선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준 분이였다. 희선 씨는 선배 역시 자신과 비슷하게, 가톨릭 신자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성당과 멀어진 소위 냉담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선배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고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는데, 그 힘이 바로 길에서 만난 그 지인 덕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희선 씨는 지난 시간 멀리했던 신앙을 다시 찾고자 선배의 지인과 만나게 되었다. 선배의 지인은 희선 씨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에 감동한 희선 씨는 그가 소개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 교회는 그녀에게, 자신이 새로운 교회에 나오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알려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희선 씨의 교회 활동은 그녀의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그녀의 부모님은 석연치 않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뭔가 변한 딸의 모습과 변화된 행동들에 고민하던 부모님은, 비로소 희선 씨가 다니

는 곳이 가까운 성당도, 열심히 활동하던 동아리도 아닌, 소위 이단분과 유사종교임을 알게 되었다.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은 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자 희선 씨는 그 교회에서 가르쳐준 믿음에 따라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정해진 때(종말)가 오면 내 믿음 덕분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은 잠시 집을 떠나있자!'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와 교회에서 생활했고 부모님도 만나지 않았다. 그토록 애타게 딸을 찾는 희선 씨의 부모님에게 그 교회는, 자신들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거나 감금하지 않았으니 잘못은 부모에게 있다고 되레 책임을 돌렸다.

대학 신입생 도와주기, 캠퍼스 새내기 클럽 운영, 토익 준비를 위한 영어 성경 공부, 도형 심리 상담, 심리·행동 유형 설문지, 음악 동아리, 뮤지컬 동아리, 독서 클럽, 농구 동아리, 악기 강좌와 함께하는 찬양 전도사, 타로점, 조별 프로젝트, 커플 상담, 멘탈 뷰티,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취업 컨설팅, 하늘문화, 세계 평화 등 등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 유사종교 집단은 젊은이들에게 다가온다.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가진 열정과 호기심, 세상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대학 생활과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교묘히 이용하여, 포교의 대상자를 포교자로 만들어 그들 집단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부모와 헤어지고 교회에서 제공한 작은 방에서 같은 집단의 사람들과 모여 사는 희선 씨는 이제 설문지를 들고 거리로 나선다. 자신의 집단으로 누군가를 더 데려와야만 구원에 있어서 특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집단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도 가정도 친구도 이제 오로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곳을 위한 대상으로 이용할 뿐이다.

사냥꾼은 텃을 놓을 때 들키지 않도록 감춘다. 동물이 줄곧 다니는 안전하고 익숙한 길목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텃을 놓지만, 교묘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단분과 유사종교들이 설치한 텃은 그것을 밟아도 당장에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한다. 그만큼 교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텃을 밟았음을 다른 이들이 알게 될 때쯤 그들에게는 이미 텃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올가미까지 매어져 있게 된다. 그 텃의 위험에서 우리의 가족, 자녀, 친구, 지인이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유사종교의 활동을 경계해야 한다. 참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길 위에는 교묘한 텃도, 올가미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서는 순례의 길인 교회의 길을 걷는 우리와 동행同行하시고, 우리를 당신 영광의 나라로 이끄시는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 105)